



# 서울전자통신(027040)

## 전원부품 및 EMS 제조 기업

### 기업정보(2022/02/08 기준)

대표자	호경근
설립일자	1983년 06월 17일
상장일자	1999년 12월 03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전자부품 제조업
주요제품	전원부품, EMS 등

### 시세정보(2022/02/21 기준)

현재가	67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466억 원
발행주식수	69,588,847주
52주 최고가	1,060원
52주 최저가	635원
외국인지분율	1.37%
주요주주	
김원우 외 3인	41.90%

### ■ IT/산업용 기기의 전원부품 및 결제 단말기 전문 기업

서울전자통신(이하 동사)은 1983년 설립 이후 IT 및 산업용 기기의 전자부품 및 결제단말기를 생산해 온 기업으로 1999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UL/CSA, IEC 등 안전규격 및 ISO9001/14001을 취득하였다.

동사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누적된 기술 노하우를 이용하여 가정용, 통신용, 의료용,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가능한 고효율 전원공급 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지에서의 부품 수급 및 해외 생산지 구축을 통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EMS(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 전자제품 생산 서비스) 사업부 구축을 통해 POS(Point of Sale) 기기, 키오스크 등의 결제단말기를 생산하고 있다.

### ■ 전원공급장치 및 EMS 시장 확대에 의한 매출 성장 전망

동사의 주요 매출은 전원부품과 EMS 사업에서 발생되며, 오디오 전원부품(Power Trans)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의 전원공급장치는 SONY社 오디오 신모델, ANAM社 사운드바에 채택되어 각 신제품 모델에 적용예정이고, 삼성전자 노트북에 동사의 터치패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LG전자의 키오스크 사업의 EMS 공급자, 일본 기업의 카오디오의 EMS 공급자로서, 고객맞춤형 생산을 통해 글로벌 고객사들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전원부품 시장 및 EMS 시장은 매년 약 5%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언택트 시대로 인해 기존 고객사들로부터의 매출확대가 예상됨과 동시에 비음향기기용 전원부품 시장 진출 확대 및 신규 EMS 사업부문 확대를 통해 동사는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요약 투자지표(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846.2	-7.9	-16.9	-2.0	-41.8	-4.9	-11.7	-5.4	137.4	-65	526	-	2.2
2019	655.9	-22.5	-18.3	-2.8	40.5	6.2	6.4	3.7	47.0	59	1,343	17.3	0.8
2020	598.2	-8.8	-12.6	-2.1	-33.7	-5.6	-3.3	-2.3	45.4	-48	1,588	-	0.5

## 기업경쟁력

### 제품 다각화 및 원가 경쟁력 보유

- 글로벌 경쟁력 및 원가 경쟁력 확보
- 가정용, 통신용, 의료용, 산업용 등 제품 다각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및 고객 보유
- 부품 수급 현지화, 해외 생산지 구축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 자체 정책에 따른 품질 관리

- 동사의 품질 정책
- 부품별 선행품질 확보 : 개발초기 품질확보,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등
- 품질체계 표준화 : 검사표준 관리 등
- 개발모델 선행품질 확보 : 개발 단계 프로세스 준수 등
- 제조현장 6대항목 관리 : 관리계획서 점검, 출하검사 등

##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 주요 기술 요소

- 전원부품
- 아날로그식/디지털식 전원부품 개발 능력 보유
- Entry 모델부터 High-end 모델 개발 능력 보유
- EMS
- 결제단말기 보안 표준에 따른 EMV 인증 보유
- 한국기계연구원 보안인증 보유

###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

- 전원부품
- 주요제품 : Power Trans & Reactor, SMPS, IT/산업용 디지털 전원 등
- EMS
- 주요제품 : POS, 결제단말기, 키오스크, 노트북 터치패드, IoT 콘센트 등

## 시장경쟁력

### 사업부문별 시장 점유율

- 전원부품
- 오디오 전원부품 분야 국내 1위
- 시장점유율 : 70% (동사 제공 자료 기준)
- EMS
- 시장점유율 : 30% (동사 제공 자료 기준)

### 전원부품 시장 규모

연도	세계 시장규모*
2019	296억 달러
2027(E)	425억 달러

\* 출처 : Verified Market Research(CAGR 4.73%)

### EMS 시장 규모

연도	세계 시장규모**
2019	5,000억 달러
2026(E)	6,500억 달러

\*\* 출처 : Global Market Insights(CAGR 5%)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내부적으로 심사하고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음.
- 동사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프로세스를 구축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해 품질확보와 고객 만족을 도모함.
- 동사는 자녀 학자금 지원, 구내 및 지역사회 협력식당 운영, 휴게실 보유, 패밀리 데이 운영 등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용 중임.
- 동사는 여성 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 비율은 동 산업(C29) 평균 이상임.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내부정보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윤리강령을 공개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있음.
- 동사는 감사를 선임하고 감사 지원조직을 구성해 감사업무의 지원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하고 있음.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 I. 기업현황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시장 점유율 유지 및 원가 경쟁력 확보

동사는 IT 및 산업용 기기의 핵심부품인 전원공급 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동사가 보유한 기술 노하우와 자체 품질 관리 정책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해외 부품 조달 및 해외 제조지 확보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마련하여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 ■ 회사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전압변경을 필요로 하는 전자 기기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Power Transformer 및 SMPS(Switched Mode Power Supply) 등의 전원부품과 결제단말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1983년에 설립되어 1999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따르면, 동사는 [표 1]과 같이 3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으며 이들은 해외에 소재하면서 동사의 주요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동사 및 이의 종속회사는 재화와 용역의 성질, 제품 및 제조공정의 특징을 고려하여 전자부품제조부문, EMS 부문(결제단말기, 터치패드 제조 및 판매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사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 부품 수급 현지화, 해외 생산지 구축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1] 부문별 사업현황

상호	소재지	주요 사업의 내용	주요 고객
서울전자통신	한국	트랜스포머, 스위칭트랜스, SMPS 등 가전제품 및 전기자동차의 전원부 공급	RINNAI, 세라젬, 청호나이스, 경동원, LG이노텍 외
		POS, CAT 등 결제단말기 생산 및 공급	NICE정보통신, KIS정보통신, OKPOS
		노트북 터치패드 공급	삼성전자
SET VINA Co.,Ltd	베트남	트랜스포머, SMPS 등 가전제품의 전원부 생산	ANAM, INKEL, ZDL
		POS, CAT 등 결제단말기 생산	NICE정보통신, KIS정보통신, OKPOS
		노트북 터치패드 생산	삼성전자
Seoul Electronics (M) SDN. BHD.	말레이시아	트랜스포머, SMPS 등 가전제품의 전원부 생산	SONY, YAMAHA, ONKYO
Seo Kyeong(H.K.)	중국	트랜스포머 등 가전제품의 전원부 공급 EMS 및 전원사업 주요자재 Sourcing	ZDL -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2] 동사의 최근 3년간 주요 연혁

연도	내용
2019년	3월 베트남 SMT/EMS 생산라인구축
2020년	5월 삼성 Touch-pad 사업 진입
	10월 DENON 110주년 기념모델자사 전원부품 탑재
2021년	7월 말레이시아 신공장이전

\*출처: 동사 IR 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 ■ 주요 사업 부문 – 전원부품, EMS

동사의 2021년 반기 기준 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전원부품 60.9%, EMS 39.1%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부품 사업부문에서는 Power Transformer, SMPS 등의 오디오 전원 및 선박,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산업 전원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또한, EMS 부문에서는 POS 기기, 결제단말기, 키오스크 등을 EMS 방식(외부 업체로부터 수주해 전자제품 생산만 전담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동사는 부품별 개발 초기 단계의 품질확보, 품질체계 표준화, 개발 단계 프로세스 준수, 제조현장 6대 항목 관리 등의 자체 품질정책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원부품 사업부문에서 국내 시장의 약 70.0%, EMS 사업부문에서 국내 시장의 약 30.0%를 점유하고 있다.

동사는 현재 전원부품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가 점유하고 있는 내수시장 점유율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업계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가격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원가절감과 저비용 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품을 현지화하고 해외 생산비중을 높이는 생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표 3] 동사의 최근 3년간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도	연구개발 과제	세부내용
2019년	Sound bar SMPS	원가절감형 Digital 전원 개발
	Wi-Fi Speaker SMPS	제품 내 협소한 공간에 Digital 전원 성능구현
	B종 TROIDAL TRANS	TROIDAL TRANS의 UL B종절연 SYSTEM 취득
2020년	Short Ring Spot Welding	차폐용 Short Ring 작업 시간 단축 및 제품양산 일원화를 통한 품질 강화
	FR-530의 UL B종 절연 SYSTEM 취득	FR-530의 UL B종 절연 SYSTEM 취득으로 CN9030과 원재료 이원화 및 제품 원가개선
2021년	DENON 110주년 음질 트랜스개발	DENON 110주년 AVR AMP, Hi-Fi AMP, DCD 시리즈 음질 Trans 및 Black 컨셉 개발
	Guitar AMP용 TRANS	Guitar AMP의 선두주자인 Roland, Boss의 발열 감소를 위한 소형화 Trans개발
	CCTV SMPS 개발	CCTV용 40W, 80W용 SMPS 개발양산 및 150W용 개발
	DENON High-End트랜스개발	High-End제품군 EI Trans Size 확대 (EI 111→133.2mm)
	High-End TROIDAL TRANS개발	황동볼트와 Aluminum Shield Ring을 적용하여 음질개선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 09), NICE디앤비 재구성

## ■ 전원부품 사업 시장 점유율 확대

동사의 전원부품 사업은 Transformer, SMPS, Switching Trans 등의 제품을 국내외 전자업체로 판매하는 제품매출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을 본사에서 구매하여 해외 현지 공장(법인)에 수출,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상품매출로 구분된다.

동사는 오디오 전원부품을 주력으로 아날로그식/디지털식 전원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세라젼, 린나이, 청호나이스, LG이노텍, 경동원, 글로벌 기업 SONY, YAMAHA,



ONKYO, ANAM 등에 동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Verif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전원부품 시장은 2019년 약 296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연평균 4.73%씩 성장하여 2027년까지 약 42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부품 시장은 전자제품에 적용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가정 및 건물 자동화 시스템의 채택 증가는 시장 성장을 촉진한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전자제품, 의료 및 의료, 군사 및 항공 우주 분야의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자제품의 활용이 증가하여 해당 분야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 글로벌 전원부품 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출처: Verified Market Research,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최근 SONY의 신제품 전모델에 동사의 전원부품이 채택되었고, 카오디오 시장의 신규 고객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언택트 시대로 인한 오디오, 사운드 바, 블루투스, 스피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여 기존 고객사들로부터의 매출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동사는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SMPS 부품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비음향기기용 전원부품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가전용 에어컨, 냉장고, TV, VTR, 산업용 계측기, 생산설비, 의료용 기기 등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신규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 ■ EMS 사업 부문 확대 추진

EMS는 생산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전자제품 제조 및 서비스를 전담하는 사업으로, 동사는 2016년 EMS사업부를 추가하여 POS기 및 키오스크를 비롯한 결제단말기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국내 결제단말기시장의 30% 점유하고 있다.

결제단말기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기능을 제공하는 기기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기능만 제공하는 일반 카드결제단말기(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CAT), 판매상품조회, 매출조회 등 판매시점 관리기능과 신용카드 거래승인 기능을 제공하는 고정 POS, 높은 하드웨어 성능을 가진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 휴대가 가능한 기기에 POS 기능을 구현한 모바일 POS로 구분된다.

최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기존 POS 단말기 시장을 스마트 기기가 대체하고 있으며, 동사는

모바일 POS 시장 증가 트렌드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를 출시하여 왔으며, 무인 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 제품을 출시하는 등 변화하는 수요자 니즈에 부응하고 있다.

동시에, 최근 삼성전자 노트북 및 태블릿에 적용되는 터치패드를 생산하는 등 EMS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으며, 카오디오 분야로의 추가 제품군 생산을 통해 신규 EMS 매출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EMS 시장은 2019년 약 5,0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5.0%씩 성장하여 2026년까지 약 6,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트북/태블릿 등 개인 IT기기 및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IoT 기술이 연계된 스마트 홈 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반적인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이는 곧 EMS 시장의 확대로 전망된다. 나아가, 자동차 응용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어지는 등 4차 산업 발달에 따라 해당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 글로벌 EMS 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출처: Global Market Insights,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결제단말기 보안 표준에 따른 EMV(Europay/Mastercard/Visa) 인증, 한국기계연구원 보안 인증, 국내판매를 위한 KC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맞춤형 EMS 생산방식을 통해 수요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무인화 매장 증가에 따른 키오스크의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대해 최근 LG전자는 키오스크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파트너사의 사업확대에 따라 동사는 키오스크 완제품 납품규모를 늘려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일본 기업으로의 카오디오를 수출하는 등 파트너사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해당 분야 시장 규모의 증가에 따라 EMS 제조사로서의 동사의 성장이 기대된다.

## ■ 경쟁사 분석

전원부품 분야에서의 동사의 경쟁업체로는 빅텍, 파워넷 등이 있다. 매출액을 비교하면 2020년 기준 동사가 598.2억 원, 빅텍이 672.9억 원, 파워넷이 1,471.8억 원으로 파워넷의 매출액이 가장 큰 수준이다.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동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1%, 빅텍은 4.7%, 파워넷이 4.5%로 빅텍의 수익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비교해보면 빅텍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파워넷 0.8%, 동사 0.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는 90%를 상회하는 매출 원가율을 지속하고 있어 최근 -2%대 영업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국내 전원 장치 관련 주요 기업			(K-IFRS 연결 기준)
구분	서울전자통신	빅텍	파워넷
주요 사업	전자부품 제조	전기변환장치 제조	전원공급장치 제조
주요 제품	Power Trans, SMPS 등	항행용 무선기기, 전원공급장치 등	전장부품, 어댑터 등
매출액	598.2억 원	672.9억 원	1,471.8억 원
매출액영업이익률	-2.1%	4.7%	4.5%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0.6%	10.0%	0.8%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및 공시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또한, 향후 동사 사업부문의 매출향상이 기대되는 EMS 부문의 경쟁업체로는 한국컴퓨터가 있으며, 한국컴퓨터의 매출액은 1,336억 원, 매출액영업이익률은 7.6%, 연구개발비는 0.2%로 나타나 매출액 부분에서는 동사에 비해 우세하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항목의 경우 동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는 EMS 사업분야에서 약 3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EMS 사업 확대에 힘입어 점차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 국내 EMS 관련 주요 기업			(K-IFRS 연결 기준)
구분	서울전자통신	한국컴퓨터	
주요 사업	전자부품 제조	전자부품제조업	
주요 제품	Power Trans, SMPS 등	터치패드, 휴대폰용 모듈, 노트북용 LED 등	
매출액	598.2억 원	1,336억 원	
매출액영업이익률	-2.1%	7.6%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0.6%	0.2%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및 공시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 SWOT 분석

[그림 3] 동사의 SWOT 분석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ISO14001(환경경영 시스템)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내부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동사는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어 시스템 부품인 ESS(Energy Storage System, 소형 에너지 저장장치)용 트랜스를 개발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별도의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처리하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ISO9001(품질경영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품질확보와 고객 만족을 도모하고 있다. 동사는 임직원의 보건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하며, 고충 처리 담당자(담당부서)를 선임하여 직원들의 고충 및 불만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사내 휴게실과 구내식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 학자금 및 경조사와 사내외 교육을 지원하고 매월 패밀리 데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복지후생 제도로 임직원의 행복한 삶을 돕고 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는 여성 임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22.7%로 이는 고용노동부 자료(2021.02)에 따른 동 산업(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여성 근로자 비율인 13.9% 이상이다. 동사의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53.1%로 동 산업 평균인 73.4% 이하이나,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100.0%로 동 산업 평균 87.0%에 상회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평등을 일정 수준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6]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천 원)

성별	직원 수		평균근속연수		1인당 연평균 급여액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68	328,595	6.5	6.9	38,554	47,844
여	20	53,265	6.5	6.0	20,462	35,136
합계	88	381,860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0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지배구조(S) 부문에서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내부자 거래 규제, 기업설명회, 공시이행 등을 포함하는 내부정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공표하고 상장기업으로서 공시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윤리강령을 공개하고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시행하여 임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올바른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기타 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경영 전반에 관한 감사업무의 지원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검토하고 있다.

[표 7] 동사의 지배구조

(단위: 명, %)

이사회		감사		주주	
의장, 대표이사의 분리	-	회계 전문성	○	최대주주 지분율	30.41
사내/기타비상무/사외	2/1/1	특수관계인	-	소액주주 지분율	48.8
사외이사 재직기간	6년 미만	내부통제 제도	○	3년 이내 배당	-
내부위원회	-	감사 지원조직	○	의결권 지원제도	○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II. 재무분석

### 2021년 3분기 매출 실적 소폭 반등하며 적자폭 축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해외 공장 조업 차질로 매출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전원사업과 EMS 사업의 공급계약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매출 회복 가능성이 기대되며, 2021년 3분기 영업적자 폭이 축소되었다.

#### ■ 2020년에도 해외 판매가 동사의 매출을 견인

동사는 1983년 설립되어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전원공급장치 및 결제단말기 제조업체로 동사의 주력 사업 부문은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전원부품(POWER TRANS, SMPS)을 제조하는 전원사업과 결제단말기 및 노트북 터치패드 등을 제조하는 EMS사업이다.

동사의 제품은 크게 영업지역에 따라 국내영업과 해외영업으로 구별되며 국내 세라젼, 린나이, 청호나이스, LG이노텍, 경동원 등과 해외 SONY 본사(일본), SONY MALAYSIA, YAMAHA, ONKYO, ANAM 등 글로벌 음향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매출 시현하고 있다. 2020년 연결 기준 지역별 매출 비중은 국내 매출 38.2%,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해외 매출 61.8%를 각각 기록하고 있어 해외 판매가 동사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 ■ 최근 3개년 매출 외형 축소되었으나, 2021년 3분기 실적 반등

동사는 2018년과 2019년 7.9%, 22.5%의 매출액감소율을 각각 기록하며 외형이 크게 축소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전방산업의 부진 및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해외공장의 조업 차질 등으로 인해 2020년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8.8% 감소한 598.2억 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후, 주력사업인 음향기기 전원부품 판매 증가와 EMS사업 확대에 힘입어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426.2억 원 대비 10.7% 증가한 471.6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 반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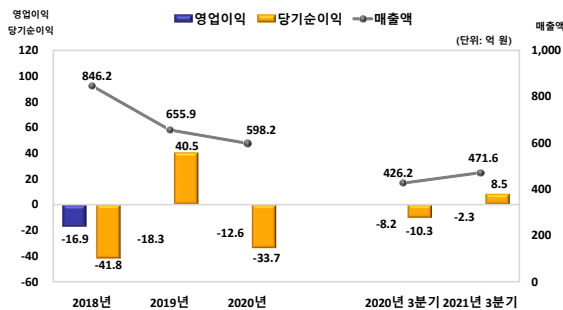
#### ■ 최근 3개년 영업적자 기록하며 열위한 수익구조 지속

동사는 90%를 상회하는 매출 원가율을 지속하고 있어 최근 3개년간 -2%대 영업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18.3억 원, 12.6억 원의 영업손실을 나타낸 가운데, 2019년 금융수익과 외환차익 등의 영업외수익에 힘입어 당기순이익 40.5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나, 2020년 외환차손, 대손상각 등 영업외 비용의 영향으로 당기순손실 33.7억 원을 기록, 또다시 적자전환하며 열위한 수익구조를 지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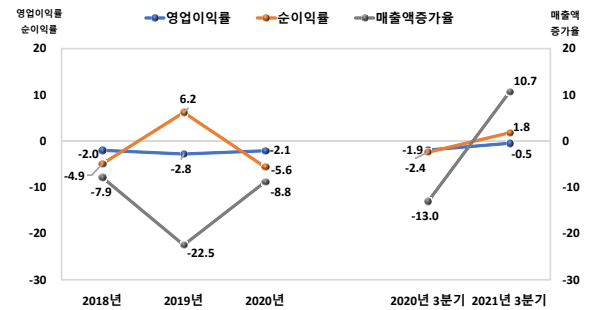
한편,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손실 2.3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적자폭이 축소되었고, 외환 관련 영업외수익의 영향으로 분기순이익 8.5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그림 4]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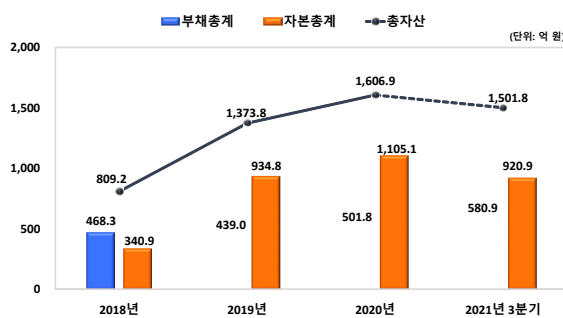
## ■ 자산 상당 부분이 비영업자산으로 구성

2020년 말 기준 부채비율 45.4%, 자기자본비율 68.8%를 기록하며 주요 안정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총 자산의 62%에 해당하는 995억 원 가량이 ITM반도체, 지니텍스 등의 타기업 지분증권인 투자자산에 편중된 가운데, 자본 상당 부분이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회사 영업 부진으로 인한 누적 결손으로 이익잉여금이 부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어 동사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은 지표 대비 저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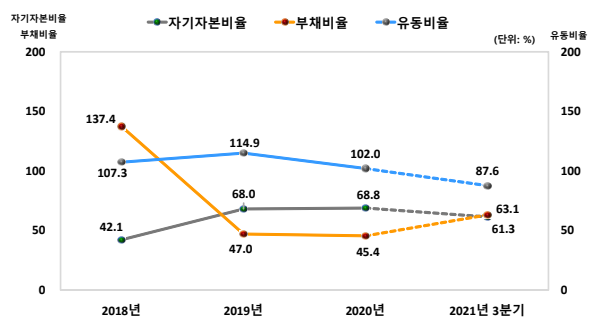
이후, 2021년 3분기 말까지 재무구조에 큰 변동은 보이지 않았으며, 부채비율 63.1%, 자기자본비율 61.3%를 기록하며 결산 이후 유사한 수준을 지속했다.

[그림 5]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자산/부채/자본 비교



자본구조의 안정성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8]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3분기	2021년 3분기
매출액	846.2	655.9	598.2	426.2	471.6
매출액증가율(%)	-7.9	-22.5	-8.8	-13.0	10.7
영업이익	-16.9	-18.3	-12.6	-8.2	-2.3
영업이익률(%)	-2.0	-2.8	-2.1	-1.9	-0.5
순이익	-41.8	40.5	-33.7	-10.3	8.5
순이익률(%)	-4.9	6.2	-5.6	-2.4	1.8
부채총계	468.3	439.0	501.8	534.7	580.9
자본총계	340.9	934.8	1,105.1	1,160.8	920.9
총자산	809.2	1,373.8	1,606.9	1,695.6	1,501.8
유동비율(%)	107.3	114.9	102.0	114.0	87.6
부채비율(%)	137.4	47.0	45.4	46.1	63.1
자기자본비율(%)	42.1	68.0	68.8	68.5	61.3
영업현금흐름	20.5	-22.8	28.5	-17.9	-21.8
투자현금흐름	-29.3	-32.0	-26.2	-5.1	-80.4
재무현금흐름	13.2	23.0	25.1	48.5	87.5
기말 현금	62.9	32.3	59.4	58.6	44.7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 Ⅲ.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양호한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매출 회복 기대

전원부품 사업과 EMS 사업의 공급계약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향후 매출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전원부품 사업부문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

동사는 전원부품 분야에서의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오디오 전원부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2020년 기준 글로벌 음향기기 제조사 Sony, Yamaha, Onkyo 등으로 납품하는 물량 중 동사의 오디오 전원부품 점유율이 7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존 고객사들로의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출시될 SONY의 신기종 전 모델 및 ANAM의 사운드바에 동사의 전원부품이 채택될 예정이며, 동시에 한화테크윈, 세라젬 등 산업전원 시장으로의 진입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전원부품 사업부문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 EMS 사업부문 성장 가속화

동사는 2016년 EMS 사업부를 추가하여 POS기 및 키오스크를 비롯한 결제단말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모바일 POS 시장 증가 트렌드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를 출시하거나, 무인 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 제품을 출시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결제단말기 시장의 30%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전자 노트북 및 태블릿용 터치패드를 생산하는 등 신규 EMS 제품군을 추가하여 매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LG전자의 키오스크 사업 본격화 전략에 힘입어, 파트너사의 사업확대에 따라 동사는 키오스크 제품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본 기업으로의 카오디오를 수출하는 등 해당 분야 매출 다변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동사의 신규 EMS 부문의 매출 성장이 전망된다.

####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교보증권	Not Rated	-	2021.1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오디오 전원부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2022년 출시될 SONY의 신기종 전 모델에 전원부품이 채택됨에 따라 글로벌 음향기기 제조사향 오디오 전원 부품 점유율이 지속 확대될 전망</li> <li>■ EMS사업 확대로 매출 다변화 가시화 중</li> <li>■ 코로나19로 해외공장의 조업활동에 차질 있었으나, 전원사업과 EMS의 공급계약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의 매출로 회복될 전망</li> </ul>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6]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2년 2월 8일)